

보건의료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활용 방안



허윤정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정보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이 진행중이며, 국내 의료 정보화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지고 있다.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활성화 추진 및 지역거점 중심 진료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질 개선과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진료비 재정 절감 新ICT 체계 구축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반 심사평가정보의 수집체계 개선 그리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도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로써 진료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진료정보 활용 고도화를 위해 표준화된 서식 기반의 진료정보 수집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16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표준화와 시스템 인증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적 기준의 구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표준화된 자료를 안착할 수 있는 수집체계가 필요하다. 선행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스템 관련 정보화 현황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표준서식 기반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등과의 협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을 촉진하여 앞으로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심사평가 업무 정확도 향상으로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와 보건의료 업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번 호는 「보건의료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활용 방안」을 정책현안 주제로 선정하였다. 비트컴퓨터 진진옥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전자의무기록 도입 현황 및 발전 과제’를 통해 국내 전자의무기록의 도입 배경을 소개하고 현재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신수용 교수는 ‘전자의무기록(EMR) 고도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통해 국내 EMR 인증제 확산을 위한 논의 및 정착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심평원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 오영원 차장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활용성 제고방안’ 주제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안 과제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업무성과 향상을 위하여 진료정보 활용 고도화에 대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풀어간다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심평원 내부에서도 보건의료 업무성과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